관광학연구 제43권 제5호(통권 171호) pp.153~182
DOI http://dx.doi.org/10.17086/JTS.2019.43.5.153.182 한국관광학회 2019. 7.

한국과 미국의 국립공원 해설사 교육훈련 체계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그 요인: 비교연구를 통한 혁신방안의 모색*

A Comparative Study of Tourism Resource Interpreter Development Programs in the U.S. and Korea National Park Service: The Historical Changes, their Factors and Implications

이 진 형** · 테레사 코블***
Lee, Jin-Hyung·Theresa Coble

요 약 :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미국의 국립공원 관리기관에서 해설사들의 역량을 강화화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어떻게 그리고 왜 변화시켜왔는지를 교육내용, 교육시간, 강사진의 구성, 학습 성과 평가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역사적 자료에 대한 검토와 관련자들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미국 국립공원청에서는 개청이후 해설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크게 네 번에 걸쳐 해설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변화시켜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네 번의 시기는 자연해설사 양성교육기(1925년-1952년), 직무연수 도입 및 정착기(1953년-1981년), 직무연수 확산기(1982년-1995년), 그리고 직무연수 고도화기(1996년-현재)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공단의 해설사 교육훈련 발전 시기는 크게 해설사 교육훈련 태동기(2000년-2011년)와 해설사 교육훈련 제도화기(2012년-현재)로 나누어졌다. 이렇듯 미국 국립공원청과 한국 국립공원공단의 해설사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었던 데에는 법적, 조직적, 기술적 요인뿐만 아니라 학계와 실무자들의 교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이 연구가 한국 국립공원공단의 해설사 교육훈련 혁신에 시사하는 바도 논의하였다.

핵심용어 : 국립공원공단, 미국 국립공원청, 생태관광, 해설사, 해설, 해설사 교육훈련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how and why the United States National Park Service and the Korea National Park Service have changed their interpreter development programs in terms of curriculum, trainers and training methods, and training achievement evaluation. A close look at the historical document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related people suggested that there have been four major eras in terms of the US NPS interpreter development programs: the beginning era (1925-1952), the establishment era (1953-1981), the development era (1982-1995), and the advancement era (1996-current). Results also indicated there have been two important ears in the KNPS interpreter development program: the beginning era (2000-2011), and the establishment era (2012-current). Results showed that legal, organizational, academic, and technological factors have influenced the changes of both institutions' interpreter development programs.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innovation of the KNPS interpreter development program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re discussed at the end.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2A1A01025905).
** 목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교신저자). email: aigod0613@gmail.com
*** E. Desmond Lee Endowed Professor of Experiential and Family Education, University of Missouri, email: coblet@umsl.edu

www.kci.go.kr

Keywords : National park service, Ecotourism. Interpreter, Interpretation

Ⅰ. 서 론

국립공원과 같은 생태관광지를 찾는 탐방객들의 만족도 제고와 생태관광 자원의 관리를 동시에 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해설(interpretation)의 가치와 중요성은 "해설을 통해 이해하고, 이해를 통해 감상하고, 감상을 통해 보호한다."는 미국 국립공원청(National Park Service) 책자의 글귀를 통해 단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Tilden, 1977, p. 38). 미국 국립공원청에서는 공원관리 수단으로서 해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해설사의 역량 및 전문성의 중요함을 인지하고(Mahaffey, 1973; Risk, 1986), 수차례에 걸쳐 해설사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경력관리 제도의 개선을 시도한 바 있다(Barrie, Coble, Ammerman & Bliss, 2015, p. 20-26; Brockman, 1978; Mackintosh, 1986; Mayo, Larsen, Barrie, Wolter & Bliss, 2009, p. 1-6). 이 중 1996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국립공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설인재개발 프로그램(Interpretive Development Program)은 해설사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혁명적인 변화로 평가받고 있다(Watson, 2005; Barrie *et al.*, 2015).

우리나라 국립공원공단에서는 2004년 공원내 해설 전담 인력으로 비정규직 자연환경안내원[1] 300명을 채용하였고, 2006년부터는 이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시작했다(국립공원공단, 2005; 2007; 2008; 2009; 2010). 하지만 이러한 교육훈련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해설사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에서는 환경부와 협력하여 관련법령을 개정, 2013년부터는 환경부와 생태관광협회가 주관하는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자연환경해설사로 채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4년부터는 자연환경해설사들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소속 해설사들이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관련 법률이 추가적으로 개정돼 모든 국립공원공단 해설사들이 3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교육훈련을 통해 자연환경해설사들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해설사들의 교육훈련 문제는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다. 가령 2014년 실시된 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해설사들의 교육훈련 만족도는 6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국립공원관리공단, 2014, p.6). 2018년에는 국립공원공단 자연환경해설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해설사들의 지위가 보다 안정적이 되었지만, 임금인상과 승진 등 해설사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조성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더욱이 자연환경해설사들의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연환경해설사 전문과정이 수차례 폐강되고, 이 과정에 참여한 자연환경해설사들의 직무역량이 의미 있게 향상되었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데(국립공원공단 탐방해설부 담당자 인터뷰 2019년 2월 18일), 이는 우리나라 국립공원공단의 해설사 교육훈련에 있어 개선의 여지가

1) 국립공원공단 '자연환경안내원'이라는 명칭은 2013년 이후 '자연환경해설사'로 변경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맥락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를 '해설사'로 간략하게 표기할 것이다.

www.kci.go.kr

적지 않게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해설사 교육훈련에 있어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미국 국립공원청의 해설사 교육훈련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되어 왔고 그 요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라 국립공단의 해설사 교육훈련의 역사와 비교해 보는 것은 우리나라 국립공원공단의 해설사 교육훈련의 혁신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생태관광 해설에 대한 탐방객들의 평가나 생태관광해설이 탐방객들의 지식, 태도, 행동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일부 있어왔지만(가령 이진형 2012, 이진형・여영숙, 2010; 오민재, 2013), 생태관광 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해설사 교육훈련의 문제를 역사적 시각에서 다룬 연구는 없었다.

미국의 경우 이 연구와 유사한 관점에서 국립공원청의 해설의 역사나 해설사들의 교육훈련의 역사를 다룬 연구들이 일부 있어왔다(예를 들어 Brockman, 1978; Mackintosh, 1986; Barrie *et al.*, 2015).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에서 조차도 미국 국립공원청의 해설사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특정시기의 단면만을 보여주는데 그치고 있고, 각 시기별로 어떠한 내용의 해설사 교육이 몇 시간 동안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해설사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강사진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해설사 교육훈련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 국립공원청의 해설사 교육 패러다임이 변화하게 되는 배경과 해설사 교육훈련의 발전을 가져오는 조직 내・외적 요인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도 결여되어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에서는 미국 국립공원청과 한국 국립공원공단의 해설사 교훈훈련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그 요인을 다각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양 기관의 해설사 교육 훈련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설사 교육훈련의 교과목과 교육시간의 변화를 살펴보는 한편 해설사 교육프로그램의 강사진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등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에서는 양 기관의 해설사 교육훈련 성과 평가 방식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국립공원 해설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변화시킨 요인도 함께 들여다보고자 하였다. 특히 미국과 한국 정부의 해설사 교육훈련 정책의 변화가 없었는지, 해설사들의 자체적인 노력이나 조직의 장의 리더십 등 조직 내적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해설사 교육과 관련하여 학계와 실무진 간의 교류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자료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은 국립공원 탐방객 경험의 질 향상, 탐방문화 개선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해설사들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규명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립공원공단의 해설사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다.

Ⅱ. 국립공원의 해설사 교육훈련의 역사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이 장에서는 이 연구의 주제인 한국과 미국의 국립공원 해설사 교육훈련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그 요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보다 자세히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과정은 이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이미 알려진 바를 요약 정리하면서, 이번 연구에서 새롭게 조명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미국 국립공원청의 해설사 교육훈련의 역사를 직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논문과 단행본에는 브로크만

www.kci.go.kr

(Brockman, 1978), 맥킨토시(Mackintosh, 1986), 그리고 배리와 그의 동료들(Barrie *et al.*, 2015)의 연구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국립공원해설사의 교육훈련의 역사를 다룬 연구는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미국 국립공원청의 해설사 교육훈련의 역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갈무리하였다.

미국 국립공원청의 해설사 선발, 교육 및 관리 체계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최초의 연구는 브로크만(Brockman, 1978)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브로크만은 미국에서 국립공원의 개념과 지정 필요성이 생겨나기 시작한 1830년대부터 2차 세계 대전 무렵까지 미국 국립공원의 주요 해설사들에는(park naturalist)[2]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고, 미국 국립공원청 해설 프로그램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를 고찰하면서, 1920년대 중반부터 1950년대 이전 미국 국립공원청의 해설사 선발과 교육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한다(Brockman, 1978).

그에 따르면 1925년 요세미티(Yosemite) 국립공원에 요세미티 자연해설학교(Yosemite Field School of Natural History; 이하 Yosemite School)가 처음으로 운영되었는데, 이 학교는 1953년 문을 닫기 이전까지 동식물과 지질 등 국립공원의 주요자원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갖춘 능력 있는 해설사들을 미국 국립공원에 제공하였다(Brockman, 1978, p. 35-36). 뿐만 아니라, 1929년과 1940년 두 차례에 걸쳐 해설사들의 의견교환 장인 국립공원 해설사 회의(park naturalist conference)가 개최되었고 (Brockman, 1978, p. 39-40), 1935년부터 수년간 미국공원청의 소속 해설가 10명이 성인교육협회의 장학금을 받고 예일대학교(Yale University)에서 특별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Brockman, 1978, p.40).

미국 국립공원청 소속 역사학자인 맥킨토시 (Macintosh, 1986)의 단행본 『국립공원에서의 해설: 역사적 관점』(*Interpretation in the National Park: A Historical Perspective*)은 미국 국립공원청 해설서비스의 역사를 폭넓게 다루고 있는데, 그의 연구는 브로크만(Brockman, 1978)의 연구에 비해 해설사 교육훈련에 관한 내용도 구체적이다. 맥킨토시는 여러 사료를 바탕으로 초창기 미국 국립공원청 해설가 양성의 산실 역할을 했던 요세미티 자연해설학교의 해설사 양성교육프로그램을 보다 상세히 논의하는가 하면, 성공리에 이 과정을 취득한 수료생들이 미국 국립공원청의 정규직(year round) 또는 파트타임(seasonal) 해설사나 각종 여름캠프의 강사로 고용되었다는 점도 기술하고 있다 (Mackintosh, 1986, p.13). 그는 또한 요세미티 자연해설학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창립 초기 미국 국립공원청 내에는 자격을 갖춘 해설사들이 충분치 않았으며, 자연과학자로서 훈련을 받고 해설사로 고용된 몇몇 해설사들의 경우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해설에 잘 적응을 못해 해고되는 일이 생기기도 하였다는 점도 보여준다(Mackintosh, 1986, p. 14)[3].

한편 맥킨토시는 콘래드 윌스(Conrad Wirth)가 1951년 제6대 미국 국립공원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1960년대 중반까지 미국 국립공원청의

2) 미국 국립공원청의 경우 창립 초기 해설사들의 공식 직책을 공원 동식물 연구자(park naturalist)로 함으로서 일반적인 공원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원 레인저(park ranger)와 그 역할을 구분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맥킨토시는 1920-30년대 국립공원 해설사라는 직업에 대한 당시 미국 사회의 분위기를 논하기도 하는데, 그에 따르면 당시 국립공원 해설사에 관심을 가졌던 대부분의 지원자들의 경우 해설사라는 직업이 국립공원에서 즐거운 방학을 보내는 정도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미국 국립공원청 초대 수석 해설사(chief of interpretation)를 맡았던 안셀 홀(Ansell Hall)은 이러한 분위기를 불식시키기 위해 1926년 다음과 같은 해설사 채용공고문을 내기도 했다. "해설사의 직무는 매일 그리고 하루 종일 탐방객들과 계속해서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지원자께서 이러한 일에 대한 열정과 공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면 지원하지 말아주기 바랍니다. 해설사는 1500명에서 2000

해설사 교육훈련의 양상과 시설 및 프로그램이 변화되는 양상도 기술하고 있다. 그는 1950년대 초반에 들어 미국 국립공원청에서는 해설사들에게 동식물 등에 대한 지식 못지않게 해설기법을 가르치는 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와 관련 1953년 초 미국 국립공원청 소속 관리자급 해설사들을 대상으로 발표능력 향상과 오디오나 비디오 장비의 활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Mackintosh, 1986, p. 85).

그는 또한 이 연구에서 미국 국립공원청에서 해설사 교육을 목적으로 1953년부터 55년까지 해설기법과 관련하여 『거점 해설』(*Talks*), 『이동식 해설』(*Conducted Trips*), 『캠프파이어 해설』(*Campfire Program*), 『탐방센터 해설』(*Information Please!*) 등 4권의 소책자를 발간하였다는 사실과 1957년 해설 원리를 최초로 체계화환 프리만 틸든(Freeman Tilden)의 『우리유산의 해설』(*Interpreting Our Heritage*)이 발간되면서 이 책이 미 국립공원청 내에 널리 보급되었다는 점도 보여주고 있다(Mackintosh, 1986, p.85). 뿐만 아니라 1963년 해설사 교육훈련을 위한 전문 연수시설로 스테판 마더 연수원(Stephen Marther Training Center)이 개원되었다는 점도 기록하고 있다(Mackintosh, 1986, p.49). 한편 맥킨토시의 연구는 미국 국립공원청에서 1972-73년 동안 관리자급 해설사 14명을 조지 윌리엄스 대학(George Williams College)[4]에서 환경교육에 관한 석사학위를 취득하도록 하였다는 사실도 언급한다(Mackintosh, 1986, p.69).

배리와 그의 동료들은(Barrie, Coble, Ammerman & Bliss, 2015) 능력기반 교육훈련(*Competency Based Training*)의 예로서 미국 국립공원청의 해설 인재개발 프로그램(IDP: *Interpretative Development Program*)을 소개하면서, 연구의 일부를 미 국립공원청의 해설사 교육 과정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갈무리하는데 할애한다. 이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앞서 언급한 맥킨토시(Mackintosh, 1986)나 브로크만(Brockman, 1978)의 연구내용과 중복되지만, 미국 국립공원청의 해설사 교육훈련의 역사와 관련된 새로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무엇보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 국립공원청에서 1980년대 중반 미국의 각 국립공원의 일선 해설가들과 관리자급 해설가들이 워크숍을 통해 해설기술(Interpretive Skills)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는 점과 1993년부터 해설 혁신(interpretive revolution)의 관점에서 해설 인재개발 프로그램(*Interpretive Development Program*)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

미국 국립공원청의 해설사 교육훈련의 역사와 관련된 브로크만(Brockman, 1978), 맥킨토시(Mackintosh, 1986), 그리고 배리와 그의 동료들(Barrie, *et al.*, 2015)의 연구는 미국 국립공원청의 해설사 교육훈련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되어왔고 그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가치 있는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미국 국립공원청 해설사들의 교육훈련의 역사를 다룸에 있어 시기적인 면에서나 내용적인 면에서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체계의 변화 요

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해설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연환경해설이라는 것은 공원 내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의 하나이고, 크게 보아 재즈 음악이나, 코미디와 같은 재밋거리와 경쟁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Mackintosh, 1986, p. 12-13.)." 그는 또한 당시 미 국립공원청 소속 해설사들은 법집행이나 시설관리 등을 맡았던 레인저(ranger)들로부터는 남성적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별로 현실적이지 않은 일을 하는 과학자로 치부되었고, 대학의 연구자나 교수들로부터는 별로 아는 것이 없는 아마추어 과학자로 취급받는 분위기였다는 점도 보여준다(Mackintosh, 1986, p. 14)

4) 1980년대에 아우로라 대학교(Aurora University)에 편입되어 현재는 학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www.kci.go.kr

인 규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에서는 미국 국립공원청의 해설사 교육훈련 1백년의 역사를 교육내용과 교수진의 구성 및 교수법, 교육성과 평가 등의 측면에서 한국 국립공원공단의 해설사 교육훈련의 역사와 비교하여 분석하여 보면서, 역사적 변천의 요인도 규명하여 보았다.

Ⅲ. 연구방법

한국과 미국의 국립공원 해설사 교육훈련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그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법의 한 유형인 내용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연구주제와 관련된 기록 문헌을 들여다보는 일종의 서술적 역사연구이기 때문에 내용분석법이 본 연구의 방법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내용분석법은 특정 현상과 관련된 서적이나 신문이나 잡지기사, 공문서 등과 같은 인간 의사소통 기록물의 내용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한편 해당현상의 변화원인이나 결과를 체계적으로 추론하는 사회과학의 분석기법으로, 신문사설 등에 대한 연구처럼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정량적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서술적 역사연구와 같은 정성적 연구방법도 있을 수 있다(김경동・이온죽, 1993, p. 320-321).

이 연구와 같은 정성적 내용분석법에서는 연구문제와 관련된 문헌자료로서 어떠한 자료가 적당한지 그리고 수집된 자료의 내용의 분석 범위를 어떻게 선정할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김경동・이온죽, 1993, p. 320-321), 이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미국 국립공원청의 해설사 교육훈련에 대한 역사적 변천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 국립공원청 전자역사도서관(National Park Service History E-library, http://npshistory.com)에 공개되어 있는 공문서와 잡지, 보고서를 들여다보았다[5]. 특히 미국 국립공원청의 해설사들의 교육 프로그램(강의주제, 강의시간, 교수방법, 교육성과 성취도 평가 방식 등)을 기록해 놓은 원자료, 해설사 교육에 사용된 교육자료, 그리고 해설사 교육과 관련된 연구논문이나 보고서 등의 자료를 찾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이 사이트를 통해 1925년부터 1953년 이전 미국 국립공원청 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요세미티 해설사학교의 정기간행물『요세미티의 자연』(Yosemite Nature Notes) 4호부터 32호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이 학교의 해설사 양성교육 프로그램의 변화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 사이트에는 또한 1950년대에 미국 국립공원청의 역사상 처음으로 제작한 해설사 교육 교재 네 권의 사본이 수록되어 있었는데, 이 책의 내용을 들여다봄으로서 당시 해설사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미국 국립공원청 전자역사도서관 사이트에는 또한 미국 국립공원청 직원 및 은퇴자회에서 발간했던 소식지인『안내원』(courier)의 대부분 호가 올라와 있었는데, 이 중 1981, 1982, 1983, 1985, 1986, 1989, 1990, 1991, 1992, 1993년에 발행된 간행물 중에는 스테판 마더 연수원(Stephen Marther Training Center)에서 실시된 해설사 연수 프로그램 내용을 담은 특별호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특별호에 실린 국립

5) 국립공원청 전자도서관(National Park Service History E-Library)은 미국 국립공원청 소속 역사가였던 뷰토프시키 박사(Dr. Butowsky)가 은퇴 후 운영해 오고 있는 포털사이트로, 이 사이트에는 미국 국립공원청의 역사에 관한 다양한 사료(신문, 잡지, 보고서 등)의 원문이 모아져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국립공원청의 역사와 관련하여 그 동안에 발간된 연구서들의 목록도 나와 있다. 이 사이트는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의 한 분과인 RUSA(The Reference and User Services Association)로부터 2016년 최고 史料 상(Best Historical Material Award)을 수상하기도 했다.

www.kci.go.kr

공원청 해설사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1980년대 초반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미 국립공원청의 자원해설사 교육의 변천과정을 분석하는데 사용되었다. 이 사이트에는 미국 국립공원청 레인저들의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다루고 있는 계간지인 『레인저』(Ranger)도 모아져 있었는데, 이 잡지를 하나씩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설 인재개발 프로그램(IDP: Interpretive Development Program)의 도입배경과 발전과정 등을 다룬 글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러한 글들은 미국 국립공원청에서 해설 인재개발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는 배경과 해설 인재개발 프로그램의 발전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미국 국립공원청의 전자도서관에는 스테판 마더 연수원의 해설사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내용 중 초기에 해당하는 1963년대부터 1970년대 말까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용은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더욱이 이 전자도서관에는 미국 국립공원청이 개발한 가장 최근의 해설사 교육훈련 프로그램인 해설 인재개발 프로그램(Interpretive Development Program)의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의 책임자는 2017년 6월 미국 웨스트버지니아(West Virginia) 주 하퍼스 페리(Haper's Ferry)에 위치한 스테판 마더 연수원을 방문,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이 센터의 지하에 위치한 문서고(文書庫)에서 1963-1966년, 1972-1982년까지 이 센터에서 실시한 해설사 교육프로그램 문서의 사본을 구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전자우편을 통해 스테판 마더 연수원 해설사 교육훈련 관계자로부터 해설인재개발 프로그램(Interpretive Development Program)의 내용이(각 교과목 명, 각 교과목의 내용과 각 교과목에서 요구하는 능력, 각 교과목별 과제 및 합격 기준, 과제 샘플 등) 구체적으로 담겨있는

〈표 1〉 미국 국립공원청 해설사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주요 자료 및 출처

자료명	주요내용	출처
Yosemite Nature Notes 1925-1953 (Vo l4.-Vol.32)	-요세미티 자연해설학교 (Yosemite Field School of Natural History) 교육내용	NPS History E-Library
Courier(1981, 1982, 1983, 1985, 1986, 1989, 1990, 1991, 1992, 1993년 특별호)	-스테판 마더 연수원(Stephen Marther Training Center)제공 해설사 연수교육 내용 (1981-1993)	NPS History E-Library
In Service Training Series -Talks(1953) -Conducted Trips(1954) -Campfire Program(1955) -Information Please(1955)	-미국 국립공원청 1950년대 해설사 교육 교재	NPS History E-Library
Courses and Conferences (1963-1980)	-스테판 마더 연수원(Stephen Marther Training Center) 교육내용(1963-1980)	스테판 마더 연수원(Stephen Marther Training Center) 文書庫
Ranger(2005 spring)	-IDP의 기원과 발전과정	NPS History E-Library
Interpretive Development Program(Curriculum, anchors, resource links)	-미국 국립공원청의 가장 최근 해설사 연수 프로그램의 과목별 요구능력 및 과제, 인증에 관한 자료	IDP Website

www.kci.go.kr

온라인 사이트를 소개받아, 이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헌검색을 통하여 미국 국립공원청의 자원해설사 양성과정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조직 내외적 요인에 관한 단서를 보여주는 관련 문헌(Ditmanson, *et al.*, 1988; NPS, 2016; Risk, 1986; Watson, 1986; 1994)도 찾아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국립공원 공단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자료는 국립공원공단의 탐방해설부의 관계자들의 협조를 받아 수집하였다. 이러한 자료 중에는 국립공원공단 해설사들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여러 공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심층면접도 보완적인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1990년대에 미국 국립공원청 본부의 수석해설사(Chief of Interpretation)와 스테판 마더 연수원장을 지낸 미국 국립공원청 은퇴자와 열 차례에 걸쳐 전자 우편 교신을 하였고, 우리나라 국립공원공단 해설업무를 주관하는 탐방복지처의 처장을 역임한 바 있는 국립공원공단 은퇴자와 두 차례에 걸쳐 전자 우편 교신을 하였으며, 현 국립공원공단 탐방해설부 해설사 교육훈련 담당 직원과 한 차례의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국 국립공원청의 해설인재 개발 프로그램 개발 과정과 한국 국립공원공단의 해설사 제도 도입과정 등에 관해 관련 문헌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확인하는 한편 관련 문헌에서 분명히 나타나지 않은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Ⅳ. 연구결과

이 장에서는 미국 국립공원청과 한국 국립공원공단의 해설사 교육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그 요인을 역사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미국 국립공원청 해설사 교육의 역사와 한국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설사 교육의 역사를 시기적으로 구분하는 것, 즉 일정한 단위로 묶어보는 것이 필요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해설사 교육의 내용과 시간, 학습 성과의 평가방식에 있어 큰 변화가 일어났던 시점을 준거로 하여 양 기관의 해설사 교육의 역사에 대한 시기구분을 하였다. 먼저 미국 국립공원청 해설사 교육의 변천과정을 다섯 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로 해설사 교육내용과 교육시간, 강사진, 학습 성과 평가방식에 어떠한 차이와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한편 그 변화의 원인도 분석하였다(〈표 2〉 참조).

1. 미국 국립공원청 해설사 교육훈련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그 요인

1) 자연해설사 양성교육기 (1925년-1952년)

미국 국립공원청 창립 초기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해설사 교육의 탯자리 역할을 했다. 1925년 버클리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출신의 조류학자이자 캘리포니아 주 환경보호기구의 교육센터 책임자를 맡고 있던 하롤드 브라이언트(Harold Bryant)가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자연해설학교(Yosemite Field School of Nature History)를 설립하여, 해설사 양성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다(Bryant, 1925).

브라이언트는 이 학교가 문을 열게 된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 "국립공원, 캘리포니아 주의 환경보호 단체들, 그리고 보이스카트와 걸스카우트 연맹 등에서 현장경험이 있는 해설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현장학습을 받은 훈련된 해설가들이 부족했기 때문이었고, 그러니 만큼 이 학교의 수업은 현장학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Bryant, 1960, p.

www.kci.go.kr

163)". 개교 초기 요세미티 자연해설학교에서는 2년 이상의 대학과정을 수료한 지원자 중 20명을 선발하여 여름방학 7주간 교육을 실시한 후 일정한 시험을 통과한 수강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Bryant, 1925, p.10)[6].

이 학교의 수업내용에는 시에라네바다(Sierra Nevada) 지역의 지형, 동식물분류학, 동식물분포, 수목학(나무, 꽃 등), 동물학(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등) 등 5개분야에 대한 교실수업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전반적인 수업의 방점은 현장학습에 찍혀 있었다. 학생들은 매일 오전 8시부터 한 시간 정도 요세미티 계곡의 동식물에 대한 현장학습에 참여했고, 매주 토요일은 학교 인근에서 하루 종일 현장학습에 참여했으며, 마지막 주에는 요세미티 북부지역에서 5일간 야영을 하면서 현장학습에 참여했다(Bryant, 1925, p.10).

요세미티 자연해설학교의 교육성과 평가 역시 현장 지향적이었다. 수강생들은 6주간의 수업 후 일정한 시험을 쳐서 기준에 부합할 경우 수료증을 받았는데, 시험 점수의 60%는 현장에서 동식물을 식별하는(identification) 점수였고, 20%는 해설능력과 관련된 필기시험, 10%는 노트필기, 기타가 10%를 차지하고 있었다(Bryant, 1925, p.10). 요세미티 자연해설학교는 2차 세계 대전 전후인 1942년부터 1947년을 제외하고 1953년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었는데(Brockman, 1978, p.37), 학교가 운영되는 기간 동안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적인 면에서 동식물과 지질 등에 대한 강의와 현장학습이 중심이되었다는 점과 강사진이 대부분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국립공원청 소속의 중견 및 관리자급 해설사들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크게 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Harwell, 1931; 1933; 1934, Lytle, 1950).

하지만 수강생들의 학습 성취도 평가방식이나 지원자의 자격 기준에 있어서는 일부 변화도 있었는데, 가령 1930년대 초반부터는 점수를 매기는 시험이 없어진 대신 수강생들에게 캠프파이어(camp fire)나 이동식 해설(conducted trips) 등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며, 이 과정을 잘 마친 학생들에게는 모두 수료증이 주어졌다(Harwell, 1931; 1933; 1934, Lytle, 1950). 요세미티 자연해설학교의 졸업생들 중 상당수는 미국 국립공원청 산하 국립공원, 주립공원 그리고 기타 청소년 캠프의 해설사로 고용되었는데, 1940년까지 300명에 가까운 졸업생 중에 미 국립공원청의 정규직 해설사로 고용된 사람이 20명, 파트 타임 해설사로 고용된 사람이 30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었다(Bryant, 1940, pp.38-38).

이렇듯 요세미티 자연해설학교가 미국 국립공원청의 신입 해설사 양성소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정작 국립공원청에 몸담고 있는 해설사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는 1950년대 초반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지 않았다. 1940년대 말까지만 해도 미국 국립공원청 본부(Washington Support Office: WASO)에 국립공원청 직원들의 직무연수를 담당하는 별도의 부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청 직원들의 연수시설이 별도로 존재하지도 않았다. 국립공원청 소속 해설사들의 교육훈련은 통일성 없이 개별 공원단위에서 간헐적 실시되는 정도에 그쳤다(National Park Service Employee Development Division, 1991, p.28)[7].

6) 개교 초기에는 지원자가 많아 지원자의 25%정도만을 합격시켜야 했다(Bryant, 1925, p. 9).

7) 미국에서 기업이나 국가기관에 직무연수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이 2차세계 대전 이후였던 것을 고려하였을 때(Torraco, 2016, p. 2), 1940년대 말까지 미 국립공원청 본부 차원의 해설사 직무연수 프로그램이 별도로 없었다는 것은 이해 될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www.kci.go.kr

〈표 2〉 미국 국립공원청 해설사 교육훈련의 역사적 변천 과정

시기구분	교육 내용	교육장소, 시간 및 교육방법	학습 성과평가방법
자연해설사 양성교육기 (1925년-1952년)	-동식물, 지질 등 해설자원	-매년 20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요세미티 자연해설사학교에서 1년에 1차례씩 월-토요일 일일 8시간씩 총 7주간의 집체교육	엄격한 개별시험(현장 동식물 식별, 필기시험)
직무연수 도입·정착기 (1953년-1981년)	-다양한 세팅(방문객 센터, 이동식, 거점, 박물관)에서의 해설기법 -여러 유형의 청중(어린이, 외국인, 장애인, 소수민족 등) 대상 해설기법 -해설매체(오디오, 비디오, 표지판) 등을 이용한 해설 -환경교육과 역사해설	-스테판 마더연수원에서 과목별로 5일(40시간)에서 10일(80시간) 집체교육 -과목별 교육 횟수는 교육수요에 따라 상이함 -과목별 수강생수는 20-30명으로 제한	-팀별로 작성된 해설기획서 평가
직무연수 확산기 (1982-1995년)	-해설기술Ⅰ(대면해설) -해설기술Ⅱ(비대면해설) -해설기술Ⅲ(특수집단 및 특수상황해설) -해설기술Ⅳ(해설원고작성) -해설기획 -해설코치 -관리자를 위한 해설 -다양한 역사해설(미국 인디언 문화해설 군사시설해설, 구식무기시현해설 등)	-10개 지역사무소에서 해설기술의 Ⅰ, Ⅱ, Ⅲ과목을 1주(40시간)에서 2주 (80시간) 집체교육⇒교육이수자 대폭확산 -스테판 마더 연수원에서 해설기술 Ⅳ, 해설기획, 해설코치, 관리자를 위한 해설, 역사해설 등 1주(40시간)-2주(80시간) 집체교육[8]	-각 과정별 교육목표는 있었으나 명확한 학습 성과 평가기준 부재(간헐적인 개인별 해설시연이나 과제물 발표
직무연수 고도화기 (1996-현재)	-해설인재개발프로그램 3단계(입문, 발전, 완성) 10개 모듈(해설원리, 탐방안내, 거점해설, 이동식해설, 시연과 체험을 통한 해설, 해설원고작성, 체험학습기반해설, 해설기획, 해설미디어, 해설코치 훈련) -청중중심 해설(21세기 해설, 포용문화만들기, 청중과의 대화기술, 청중중심 경험을 통한 관계의 형성) -기후변화해설	-개별 해설사별로 각 모듈별 인증에 필요한 교육훈련 플랫폼 선택(멘토링, 동료코칭, OJT, 공원단위교육, 지역사무소단위 교육, 온라인 교육, 지역대학연계 교육 등) -스테판 마더 연수원은 필요에 따라 일부 교육과정만 운영(1주 40시간) -온라인을 통한 각 모듈별 교육콘텐츠, 평가기준 및 수범 해설 성과물 제공(가령 IDP 홈페이지, eppley institute, common learning portal)	-각 모듈별로 명확한 교육목표와 학습 성과 평가기준을 정해 놓고, 이 기준에 따른 각 모듈별 성과물 (가령 해설동영상, 해설원고, 기획서 등)을 복수 인증자가 인증

2) 직무연수 프로그램 도입·정착기 (1953-1981년)

1951년 들어서 미국 국립공원청 내에 인재개발부(Division of Training)가 신설되는 등 소속 직원들의 직무연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National Park Service Employee

8) 과목별 교육횟수는 교육수요에 따라 상이했으며, 교과목당 수강생 수는 20-30명선

www.kci.go.kr

Development Division, 1991, p. 28). 말하자면 1950년 초에 이르러서 미국 국립공원청에서는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직무연수가 시작되었던 것이고, 이는 미국 국립공원청 소속 해설사들의 교육훈련에도 변화를 가져 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 국립공원청의 해설사 교육 훈련과 관련하여 이 시기에 일어났던 최초의 변화는 1950년대 초반에 미국 국립공원 역사상 처음으로 해설사 교육훈련 소책자(매뉴얼) 네 권이 만들어져 일선 국립공원의 해설사들에게 배포되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Mackintosh, 1986, p. 85).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소책자의 내용이 '거점해설', '이동식해설', '방문객센터 해설', '캠프파이어 해설' 등 다양한 상황의 해설 유형에서 어떻게 탐방객들과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었다는 점이다(National Park Service, 1953; 1954; 1955a; 1955b). 요세미티 자연해설학교의 주된 교육내용이 동식물과 지질, 환경 등에 대한 것이었음을 고려할 때 탐방객과의 소통방식을 다루고 있는 이러한 해설사 교육책자의 내용은 획기적인 변화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5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미국 국립공원청 역사상 처음으로 신입 레인저 직무연수프로그램이(in-house training) 실시되기도 하였다. 미국 국립공원청에서는 1957년부터 1962년까지 신입 레인저들을 대상으로 요세미티 서비스 학교(Yosemite Service School)를 열어 신입 레인저 직무연수를 실시하였는데, 이 직무연수 프로그램에는 해설업무에 관한 교육도 포함되어 있었다(Mackintosh, 1986, p. 85). 1963년에는 웨스트버지니아(West Virginia) 주의 하퍼스 페리(Harper's Ferry)에 미국 국립공원청의 해설사 전문 연수원인 스테판 마더 연수원(Stephen Marther Training Center)이 조성되었고(National Park Service Employee Development Division, 1991, p. 29), 이 연수원의 개원은 미국 국립공원청 해설사들의 사내 직무연수를 정착 시키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스테판 마더 연수원의 개원은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국립공원청 소속 해설사들을 한 자리에 모아 통일성 있는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고 전문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스테판 마더 연수원 창립 초기인 1963년부터 1964년에는 미국 국립공원의 해설사 직무연수 역사상 가장 길고 포괄적인 2개월(8주, 320시간)의 해설사 직무연수가 1년에 두 차례씩 총 네 차례 진행되었다(Stephen Marther Training Center, 1963, 1964). 전국에서 모인 중견 해설사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직무연수에서는 탐방객에 대한 이해, 오디오 비디오와 전시물의 활용, 박물관에서의 해설, 표지판을 이용한 해설, 어린이를 위한 해설, 외국인을 위한 해설 등과 같이 탐방객의 특성에 맞는 해설의 기획과 해설매체의 사용에 관한 교육, 파트 타임 해설사 교육과 감독에 대한 교육 뿐만 아니라 지질학, 생물학, 생태학, 역사학, 고고학, 민족학 등 해설의 내용과 관련된 강의도 포함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직무연수에서는 5회의 당일 현장학습(field trip)과 1회의 1박2일 현장학습도 이루어졌다.

당시의 해설사 연수 프로그램은 저녁시간에 참가자들의 해설 시연과 평가가 이루어 질 정도로 빡빡한 일정으로 짜여 있었으며, 수업과 현장학습에 참여하는 것 이외에 팀별로 해설기획서(interpretive prospectus)를 제출하여 이를 평가받는 것을 수료요건으로 삼았다. 스테판 마더 연수원의 직무연수 강사진은 연수원 직속 강사들과 미국 국립공원청 본부나 지역 사무소(regional office)의 관리자급 해설사들, 그리고 유관기관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었고, 교수법적인 면에서는 강의 이외에 시연과 토

www.kci.go.kr

론(가령 현장학습 후 토론, 해설시연에 대한 평가토론 등) 등도 함께 사용되었다.

스테판 마더 연수원에서의 해설사 직무연수는 1965년 이후 교육프로그램적인 면에서 그리고 참가자들의 학습 성취도를 평가하는 방식에 있어 변화가 일어난다. 가령 1965년 직무연수부터는 동식물과 환경, 생태학, 역사, 고고학 등이 교육내용에서 사라지고, 교육기간도 6주로 줄어들게 된다(Stephen Marther Training Center, 1965, 1966). 참여자들의 성과평가 방식에 있어서도 해설시연에 평가는 없어지고, 팀별로 작성된 해설기획서의 평가만이 이루어지게 된다(Stephen Marther Training Center, 1965, 1966). 이는 해설사 직무연수의 교육훈련의 강도가 다소 약해지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1970년대 중반까지 지속된다.

더욱이 1969년 들어서면서 부터는 스테판 마더 연수원의 해설사 직무연수 방식이 한 가지 주제를 1주(5일)또는 2주(10일)로 나누어 연간 수차례 교육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고(Stephen Marther Training Center, 1969), 1970년 이후로는 스테판 마더 연수원에 2주 이상의 해설사 교육과정이 없어지게 된다. 반면 직무연수의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동식물과 환경, 생태학, 역사 고고학 등에 대한 교육대신 해설운영(Interpretive Operation)이나 시연적인 해설(Interpretive Demonstration) 같이 해설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내용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기술을 분야별로 다루는 커리큘럼도(예를 들어 Visual Aid, Writing, Speaking 등) 등장한다.

한편 1971년 미국 국립공원청 워싱턴 본부에 환경해설 사무소(Office of Environmental Education)가 생겨나는가하면, 1973년부터는 스테판 마더 연수원의 해설사 직무연수 내용 중에 환경교육, 환경보호와 같은 커리큘럼이 생겨났다(Stephen Marther Training Center, 1973)[9]. 뿐만 아니라 1973년부터는 살아있는 역사(Living History)나 전시방법(Curatorial Method) 등 역사해설과 관련된 새로운 연수 과목들도 생겨나게 되었다(Stephen Marther Training Center, 1973).

1970년대 초 미 국립공원청 해설사들의 역량과 해설사 교육이 정체되거나 뒤떨어지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됨에 따라(Everhart, 1973), 미국 국립공원청에서는 1975년 스테판 마더 연수원에 80시간(2주)의 '기초해설기술'(Basic Interpretive Skill) 과목을 신설하는 등 해설사 직무연수를 강화한다(Stephen Marther Training Center, 1975). 또한 1976년에는 『해설사를 위한 자기주도 학습서』(*A Personal Training Program for Interpreters*)라는 교육훈련 교재도 출간한다. 뿐만 아니라 1978년부터는 '해설관리'(Interpretation Management)와 같은 중견 해설사들을 위한 직무연수과목도 생겨나게 되고(Stephen Marther Training Center, 1978), 1981년 들어서는 장애인에 대한 해설과 관련된 '특수집단 해설'(Interpretation for Special Population)이나 '소수인종 해설'(Interpretation for Minority)과 같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해설 과목 등이 추가된다(Stephen Marther Training Center, 1981).

3) 직무연수 프로그램 확산기 (1982년-1995년)

미국 국립공원청에서는 1982년 워싱턴 본부의 수석해설사를 비롯하여 산하 10개 지역사무소의 수석 해설사들, 워싱턴 본부 탐방해설부 직원들, 그리고 일선 해설가들이 모여 당시 해설서비스의 현황과 해설사 교육훈련에 관한 회의를

9) 뿐만 아니라 이 무렵을 전후로 학계에서는 환경해설에 일련의 저술들과 대학의 환경해설사 양성교육에 관한 논문들도 출판된다. 자세한 내용은 Hanna(1972), Mahaffey(1973), Sharpe(1982) 등을 참조.

개최하는데(Watson, 1986, p. 4), 이 회의는 미 국립공원청의 해설사 직무연수의 고도화를 가져오는 새로운 전기가 된다. 이 회의 참가자들은 미국 국립공원청 해설서비스의 수준이 1980년대 초반 들어서 상당히 저하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대안으로 해설사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Watson, 1986, p.4). 이러한 권고에 따라 스테판 마더 연수원에서는 1983년 두 차례에 걸쳐 해설사 교육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국립공원청의 10개 지역 사무소(regional office)에 해설교육을 전담할 10개의 해설기술팀(각 팀당 5명)을 구성한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사무소에서 일선 해설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해설사 교육훈련의 교과목으로서 해설기술 I(Interpretive Skill I, 대면해설)과 해설기술 II(Interpretive Skill, 비대면해설)을 정하게 된다(Watson, 1986, p.4). 그리고 이 10개의 해설기술팀은 84년과 85년 걸쳐 미국 국립공원청의 10개 지역사무소에서 약 1천5백 명의 일선 해설사들과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해설기술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Watson, 1986, p.4).

교육내용적인 면에서 보자면 해설기술 교육프로그램은 1970년대 중후반에 스테판 마더 연수원에서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 제목의 해설사 교육 프로그램을 해설기술(Interpretive Skills)이라는 이름 아래 유형별로 체계화해서 묶은 정도라고 할 수 있지만, 교육 수혜자의 수적인 측면에서는 이전의 미국 국립공원청 해설사 교육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83년 이전 미국 국립공원청 본부 차원의 해설사 교육은 대부분 스테판 마더 연수원에서만 이루어졌다면, 1983년 해설기술팀이 구성되고 나서는 각 국립공원이 인접해 있는 10개의 지역사무소가 해설사 교육 공간으로 사용되면서 해설사 직무연수 수혜자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1985년에는 해설기술 I(대면해설), 해설기술 II(비대면해설)의 교육시간이 각각 40시간에서 80시간으로 늘어났고, 해설기술 III(특수집단 및 특수상황해설), 해설기술 IV(해설 원고작성 및 해설 브로슈어 만들기)가 새로운 해설기술 교과목으로 추가 되었다(Watson, 1986, pp.5-6).

그 결과 1985년 초 80시간에 불과했던 해설기술 직무연수는 1986년에 들어서는 총320시간까지 늘어나게 된다. 말하자면 1986년 시점에서 미국 국립공원 해설사들이 해설기술 I, II, III, IV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과목당 2주씩 총 8주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86년 이후 스테판 마더 연수원의 해설사 직무연수에는 미국 인디언 문화해설,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 500주년 기념해설, 군사시설 해설, 구식무기 발사 자격증 취득, 미국의 장거리 트레일 해설, 대통령 소유물의 해설과 보존 등 역사해설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직무연수과목이 등장하기도 하였다(National Park Service Division of Training, 1986).

미국 국립공원청 해설기술 프로그램의 강사진은 대부분 미국 국립공원청의 관리자급 해설사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1983년 이전 미 국립공원청 해설사 교육훈련의 강사진의 구성과 큰 차이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 진행되었던 국립공원청의 해설사 직무연수의 경우 직무연수 참가자들의 교육목표는 비교적 명확히 제시되었으나 참가자들이 학습 성취도 평가지침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1965년 이후 미국 국립공원청의 해설사 교육훈련 성과 평가 방식과도 큰 차이가 없었다.

실제로 당시 연수 참가자들에게 시험을 보게 하거나, 시연을 해보게 하는 것 등을 통해 참가자들의 학습 성취도를 측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간헐적으로만 진행되었다(Watson, 2005, p.7). 1984년부터 지역사무소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해설기술(Interpretive Skill I, II,III, IV) 직무연수의 경우 각 연수의 마지막 부분에

www.kci.go.kr

서 참가자들로 하여금 짧은 해설을 시연해 보게 하거나, 자신들의 과제물을 발표하게 함으로서 참가자들의 연수를 통해 중요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보여주게끔 했지만, 해설시연이나 발표가 마지막에 급하게 진행되는 데다 이에 대한 엄격한 평가과정이 결여되어 참가자들의 학습 성취도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웠다(Dahlen, 2005, p.9).

4) 직무연수 프로그램 고도화기 (1996년-현재)

미국 국립공원청의 해설사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1990년대 초 역량 중심의 교육훈련(Competency Based Training)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한 층 더 강화되고 고도화 된다. 해설기술 프로그램의 경우 해설사 교육장소를 스테판 마더 연수원 중심에서 해설사들이 접근하기 좋은 지역 사무소로 이동함으로 직무연수의 수혜자가 대폭 늘어났다는 점에서는 획기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었지만, 해설사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일관된 철학 등이 부재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Barrie *et al.*, 2015, p.21). 이러한 상황에서 1993년 60명의 해설사들이 모여 미 국립공원청 해설의 미래에 대해 토론하면서 해설사 교육에 있어 혁신(interpretive revolution)이 추구된다(Barrie *et al.*, 2015, p.21).

1994년에서 1996년까지 미국 국립공원청 지역 사무소 수석해설사들은 각 직급별 해설사 직무기술서에 대한 검토와 9백명의 일선 해설사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400여명이 넘는 현장 해설가들의 검토, 그리고 시범 강의 등을 거쳐 미국 국립공원청 해설사들이 갖추어야 할 10개의 핵심 역량(competency)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이 10개의 핵심 역량을 그 수준에 따라 입문, 발전, 완성수준의 역량으로 분류하고 모듈화한다(Watson, 2005, p.7)(〈표 3〉참조). 뿐만 아니라 미국 국립공원청에서는 이러한 10개의 역량들을 키우는데 필요한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교육교재를 개발한다. 나아가 각 모듈별 성과물에 대한 복수 동료평가를 통해 모듈별 역량을 인증하는 시스템도 개발하는데(Watson, 2005,p.7), 이 인증과정은 해설인재개발 프로그램(Interpretive Development Program)을 기존의 미국 국립공원청 해설사 직무연수프로 그램과 차별화시켜

〈표 3〉 미국 국립공원청 해설인재개발 프로그램(interpretive development program)의 수준별 모듈

입문수준 entry	발전수준 developmental	완성수준 full performance
101 해설의 원리 foundation o interpretation	210 이동식 해설 conducted activity	310 해설기획 interpretive planning
102 탐방안내 informal visitor contact	220 시연과 체험을 통한 해설 demo and illustrated activity	311 해설 미디어 interpretive media
103 거점 해설 interpretive talk	230 해설원고 작성 interpretive writing	330 해설 훈련과 코치 training and coaching
	270 체험학습기반 해설 curriculum based program	

www.kci.go.kr

주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해설인재 개발프로그램은 해설 성과물에 대한 평가의 과정을 통해 해설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증한다는 측면에서 관련 강의를 듣고 끝내는 1963년에서 90년대 초반까지의 미국립공원청의 해설사 역량강화 프로그램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해설사들은 특정 모듈의 역량을 인증받기 위해서 준비된 해설 성과물(해설동영상, 해설원고 등)을 스테판 마더 연수원에 보내야 하고, 스테판 마더 연수원에서는 이를 다시 복수의 인증 담당자에게 보내, 해당 성과물이 제시된 평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한편, 해설 성과물에 대한 총평을 회신해 주도록 하고 있다.

가령 특정 국립공원 소속 초급 해설사가 거점해설(모듈 103)에 관한 해설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 분야의 해설 성과물에 대한 평가 지시문(assesment rubric)[10]에 부합하는 해설 성과물을 혼자서 준비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관리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논의 결과 별도의 교육훈련이 필요 없다면 바로 해설 성과물을 준비하면 되고,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체교육. OJT(on the job training), 코칭, 지역사무소교육, 온라인 교육, 대학연계 교육, 스테판 마더 연수원의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실제 청중들을 대상으로 5분에서 30분 동안 특정 자연유산이나 문화유산을 해설하는 상황을 녹화하여, 그 결과물을 스테판 마더 연수원에 보낸다. 스테판 마더 연수원에서는 복수의 인증 담당자가 제출된 해설 성과물이 이 모듈의 성과 평가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평가하여 회보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해설인재양성 프로그램은 해설 성과물에 대한 인증방식으로 해설사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 국립공원청 집계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60명의 인증 담당자가 약 4천 건의 해설 성과물을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Watson, 2005, p.7).

미국 국립공원청 스테판 마더 연수원에서는 2004년 해설인재 개발 프로그램(interpretive development program)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각 모듈의 커리큘럼과 평가기준 지시문(assessment rubric), 해설 성과물 제출방법, 참고문헌, 모범 성과물 등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제시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2009년부터는 인디아나 대학(Indiana University)의 이플리 공원 및 공유지 연구원(Eppley Institute of Parks and Public Lands)과 협력하여 10개의 해설인재 개발 프로그램의 모듈 중 해설의 원리, 비공식 탐방객 안내, 기초해설, 해설원고 작성, 해설훈련과 코치, 안내해설 등 6개 모듈에 관한 온라인 코스를 개발하여 보급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 되면서 미국 국립공원청 해설사들은 시간과 거리상의 제약으로 스테판 마더 연수원에 가기 어려울 경우 자신의 컴퓨터에서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해설 인재개발 프로그램의 각 모듈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인증을 위한 해설 성과물을 DVD로 만들어 우편으로 보내는 대신 이메일로 보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미국 국립공원청에서는 2014년 '21세기 미 국립공원 해설 역량에 관한 비전 보고서'를 출간하는데, 이 보고서는 디지털 시대, 세계화, 평생교육 등이 탐방객들의 욕구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보면서 다양한 문화적, 인종적, 종교적,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탐방객들이 해설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촉진자로서 해설사가 갖추어야 할 핵심 능력이라고 간주하고 있다(National Park Service, 2014). 국립공원

10) "해설이 청중들에게 자원의 중요성이나 자원의 의미와 관련하여 지적 그리고 감정적 관련성을 형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는가?"를 일컫는다.

www.kci.go.kr

에서 해설사의 역할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정의는 스테판 마더 연수원의 교육과정에도 반영되어 2017년부터는 스테판 마더 연수원과 지역 사무소에서 해설사들을 대상으로 청중중심 해설(Audience Centered Interpretation) 5일(40시간)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국립공원청에서는 2016년 말에 들어서면서 소속 직원들의 역량개발을 위해 이플리 공원 및 공유지 연구원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대체 할 수 있는 독자적인 온라인 직무연수 포털 사이트인 커먼 러닝 포탈(Common Learning Portal, https://mylearning.nps.gov)을 오픈하고, '21세기 해설: 변화와 실제(21st Century Interpretation: Shift and Practice)', '포용문화 만들기(How to Create a Culture of Inclusion)', '청중과의 대화 기술(Facilitated Dialog Technique)', '대화 질문(Dialog Question) 등 청중중심 해설과 관련된 온라인 독학 프로그램 콘텐츠를 개발해서 올려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 해설인재 개발프로그램의 핵심 능력과 관련된 5개의 중점 영역 즉 해설원리(Foundation of Interpretation), 논란이 될 만한 소재의 해설(Interpreting Critical and Hot Topics), 해설 매체(Interpretive Media), 체험학습기반 해설(Curriculum Based Education), 해설 리더십(Interpretive Leadership) 등에 관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도 커먼 러닝 포털에 올려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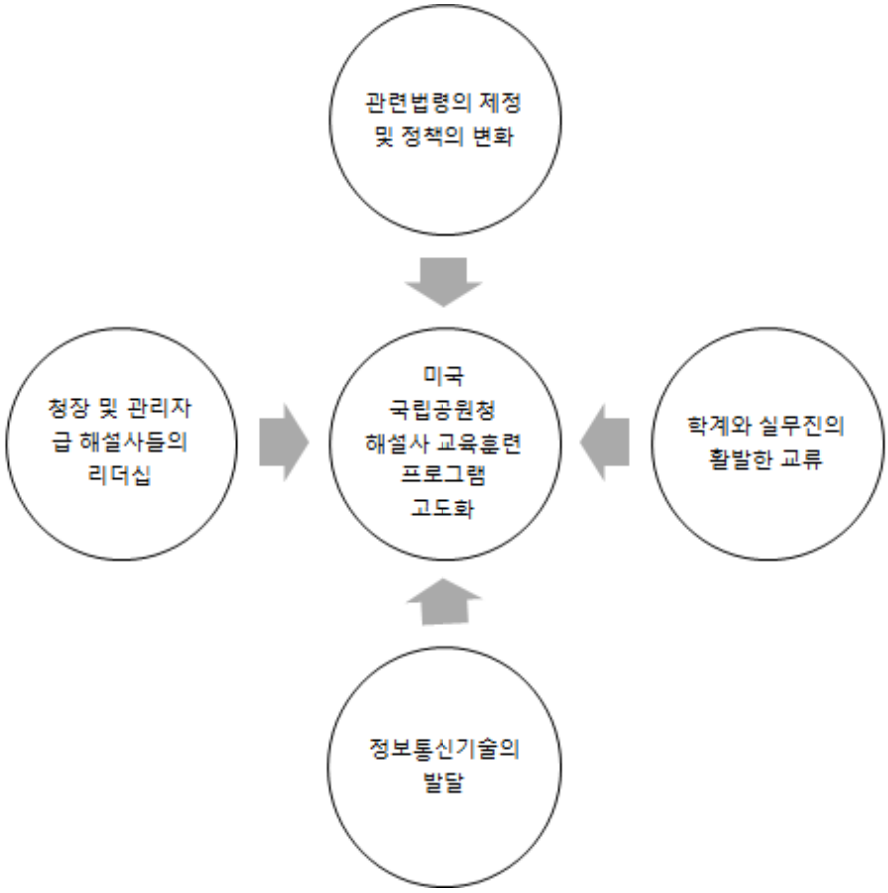
이 온라인 콘텐츠 중의 일부는 해당 해설역량과 관련된 짧은 유투브(YouTube) 동영상도 있지만, 대부분은 해당 해설역량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해당역량 성취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페이지와 해당 역량을 키우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관련 자료들이나 연습문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국립공원청 해설인재 개발팀에서는 커먼 러닝 포털 사이트 오픈 이후 특정분야의 해설역량을 보여주는 성과물을 복수의 인증자(certifier)가 평가해서 회보하는 기존 해설인재개발 프로그램의 인증과정 대신 동료 협력자(peer collaborators)들이 커먼 러닝 포탈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성과물이 평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언해주는 방식으로 해설역량 인증과정을 변경하게 된다. 2019년 현재 미국 국립공원청 해설인재개발팀에서는 해설의 원리, 청중 중심 해설, 쟁점분야 해설, 커리큘럼기반 교육, 해설 매체, 해설 리더십 등 6개분야와 관련된 200여개의 해설사 교육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커먼 러닝 포털에 올려놓고 있고, 2019년 봄에는 스테판 마더 연수원과 각 지역 사무소 7곳에서 '청중 중심 경험을 통한 관계의 형성(Forging Connections Through Audience Centered Experience)'이라는 제목의 직무연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5) 미국 국립공원청의 해설사 교육훈련의 역사적 변천에 영향을 미친 내외적 요인들

미국 국립공원청의 해설사 교육훈련이 거의 100년에 가깝게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고도화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조직 내외적 요인들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조직내적 요인으로는 일찍이 자원 및 탐방객 관리 수단으로 해설 프로그램과 해설사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해설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태동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던 국립공원청장들의 리더십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 국립공원청의 초대 청장인 스테판 마더(Stephen Marther)는 미국 국립공원청 설립 초기부터 자연환경에 대한 교육을 국립공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었고, 1920년부터는 국립공원청 본부 차원에서 해설서비스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한편 정규직 해설사(park naturalist)도 고용하였다(Brockman, 1978, p. 29-30). 그 결과 미국 국립공원청의 경우 초창기부터 해설사들의 승진

www.kci.go.kr



〈그림 1〉 미국 국립공원청 해설사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

등 보상체계가 잘 갖추어 지게 되었고, 해설사 출신들 중에 각 국립공원사무소장이 배출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 국립공원 초창기 해설사 양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요세미티 자연해설학교도 스테판 마더 재임시설에 설립되었던 것이다. 1963년 미국 국립공원청의 해설사 교육훈련 전문 연수원으로서 개원된 연수원의 이름이 스테판 마더 연수원(Stephen Marther Training Center)으로 이름 붙여진 것도 미 국립공원청 해설 프로그램 해설사 교육의 발전에 있어 스테판 마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국립공원청의 4대 청장이었던 콘래드 윌스도 미국 국립공원청 해설사 교육훈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콘래드 윌스(Conrad Wirth)는 역대 미국 국립공원청장 중 처음으로 미국 국립공원청 내에 인재개발부(Division of Training)를 신설하는 등 소속 직원들의 직무연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National Park Service Employee Development Division, 1991, p.28), 1950년대 초 미국 국립공원청 역사상 처음으로 해설사 교육훈련 소책자(매뉴얼) 네 권을 만들어 일선 국립공원의 해설사들에게 배포하도록 하였다(Mackintosh, 1986, p.85). 뿐만 아니라 그의 임기동안에 미국 국립공원청의 해설사 전문

www.kci.go.kr

연수원인 스테판 마더 연수원(Stephen Marther Training Center)이 조성되었다(National Park Service Employee Development Division, 1991, p.29).

미국 국립공원청 역사상 방문객 서비스와 해설에 대해 가장 관심이 많았던 청장 중의 하나로 평가 받는 제12대 청장 윌리엄 모트(William Mott) 역시 미국 국립공원청 해설사 교육 프로그램이 강화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모트 청장은 1985년 부임 후 10개 지역 사무소(regional office)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설기술(Interpretive Skills)에 관한 직무연수시간을 더 늘릴 것을 지시하는데, 이에 따라 해설기술 I(대면해설), 해설기술 II(비대면해설)의 교육시간이 각각 40시간에서 80시간으로 늘어났고, 해설기술 III(특수집단 및 특수상황해설), 해설기술 IV(해설 원고작성 및 해설 브로슈어 만들기)가 새로운 해설기술 교과목으로 추가 되었다(Watson, 1986, pp.5-6). 미국 국립공원청 제14대 청장이었던 로저 케네디(Roger Kennedy) 역시 인재개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취임 초기 국립공원청 교육훈련 및 인재개발 T/F팀을 만들기도 하였다(Wright & Makay, 1995, p.2). 인재개발에 대한 그의 남다른 열정은 미국 국립공원청의 해설사 교육훈련의 혁명이라고도 불리는 해설 인재개발 프로그램(interpretive development program)을 탄생시키는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국립공원청 해설사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발전과 고도화 과정에 있어 국립공원청장의 역할 못지않게 중요했던 것은 오랜 해설 경험을 가진 중견해설사들의 역할이었다(전 미국 국립공원청 스테판 마더 연수원장과의 전자우편 교신, 2019년 2월). 1950년대 초반 미국 국립공원청 역사상 처음으로 해설사 독학교재로 제작 배포된 『거점해설』, 『방문객 센터 해설』, 『이동식 해설』과 1976년 제작 배포된 『해설사를 위한 자기주도 학습서』(*A Personal Training Program for Interpreters*)는 모두 중견 해설사들의 주도로 만들어진 해설사 교재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1980년대 중반에 개발되어 미국 국립공원청 해설사 교육 수혜자의 규모를 크게 확대 시킨 해설기술(Interpretive Skills) 교육프로그램과 1990년대 중반 이후 개발되어 현재까지도 운영되면서 미국 국립공원청의 해설사 교육프로그램을 고도화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해설인재개발 프로그램(Interpretive Development Program)은 모두 해설 경험이 풍부한 중견급 해설사들이 주축이 되어 여러 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탄생시킨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Watson, 1986, 2005).

미국 국립공원청의 해설사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었던 데에는 조직 외적 요인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관련법의 제정과 관련 정책의 변화는 미국 국립공원청에서 해설사 교육훈련 시설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변화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가령 1958년 미국 의회에서 '공무원 교육훈련법(Government Employee Training Act)'이 통과된 것은 연방정부 기관으로서 국립공원청이 스테판 마더 연수원을 개원하여 해설사 직무연수를 실시하게끔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70년 미국 의회는 국가환경교육법(Nat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Act)을 통과시키고, 그 후속 조치로 초등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환경교육개발(Nat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Development; NEED)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하였는데, 이 법의 영향으로 1971년 미국 국립공원청 워싱턴 본부에 환경해설 사무소(Office of Environmental Education)가 생겨나는가 하면, 1973년부터는 스테판 마더 연수원의 해설사 직무연수 내용 중에 환경교육, 환경보호와 같

www.kci.go.kr

은 커리큘럼이 생겨나기도 하였다(Stephen Marther Training Center, 1973).

오바마 정부는 상호이해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을 국내외 정책에 있어서 핵심으로 삼는데, 이러한 정치 환경의 변화는 미 국립공원청 해설서비스와 해설사 교육의 방향을 전환하는데도 영향을 미쳤다. 오바마 정부 집권 2기 출범이후 미 국립공원청에서는 해설, 교육 및 자원봉사부서의 5개년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계획서에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탐방객들이 해설 경험을 만들어내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해설사들의 역할을 정보 전달자(giver of information)에서 촉진자(facilitator)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으로 포함되게 된다(National Park Service Interpretation, Education and Volunteers, 2014).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미국 국립공원청의 해설사 직무연수는 청중중심 해설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인지심리학, 사회학, 커뮤니케이션 이론 등을 해설 현장에 적용시켜 가며 해설이론을 발전시켜온 학계와 이들이 발전시킨 개념과 이론을 해설현장에 적용해 보고자 했던 실무자들 간의 교류 역시 미국 국립공원청의 해설사 교육훈련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1957년 프리만 틸든(Freeman Tilden)에 의해 해설 원리에 대한 에세이적 성격의 글인 『우리유산의 해설』(*Interpreting Our Heritage*)이 출간된 이후, 관련분야 학자들에 의해 해설에 관한 연구서와 교과서들이 꾸준히 출간되어 왔고(Beck & Cable, 2002; Ham, 1992; Lewis, 2011; Sharpe, 1982), 이러한 저서들은 미국 국립공원청의 해설가 교육훈련 뿐만 아니라 해설 프로그램의 방향을 정립하는데 기여했다(Mayo *et al*, 2009).

특히 해설은 단순히 사실의 전달이 아니라 자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탐방객들의 관심을 연결시키는 과정이며, 성공적인 해설을 위해서는 자원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방문객에 대한 지식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한 지식을 겸비해야 한다는 이러한 저서들의 일관된 관점은 미국 국립공원청 인재해설 개발 프로그램의 기초모듈(101)인 '해설의 원리(Foundation of Interpretation)' 교육교재에 그대로 녹아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국립공원청에서는 1930년대부터 소속 해설사들이 몇몇 대학에서 해설에 관한 석·박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도록 하였는데(Barrie *et al*., 2015; Brockman, 1978; Mackintosh, 1986), 이러한 위탁교육 역시 국립공원자원 해설사들의 자질향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발전 역시 미국 국립공원청의 해설사 교육 프로그램의 고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국립공원청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을 해설사 교육훈련에 적극 도입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원격강의, 이러닝(e-learning)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국립공원청 해설사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필요에 맞게 상시적으로 해설에 대한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게 함으로서 미국 국립공원청의 해설사 교육프로그램의 고도화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2. 한국 국립공원공단의 해설사 교육훈련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그 요인

우리나라의 국립공원공단에서 탐방객 해설서비스를 위한 직원교육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은 공단창설 13년 후인 2000년에 들어서다(신용석, 2016, p. 452). 이어 2004년에는 국립공원공단에 해설을 전담하는 인력으로 자연환경안내원이 처음으로 고용되었다. 이 절에서는 국립공원공단의 해설사 교육훈련 변천과정을 해설사

www.kci.go.kr

교육훈련이 법제화 된 것을 기준으로 해설사 교육의 태동기(2004년-2011년)와 해설사 교육 제도화기(2012년-현재)로 나누어 살펴보는 한편 그 변화의 요인을 고찰해 보았다.

1) 해설사 교육훈련의 태동기(2004-2011)

우리나라 국립공원에서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레인저들에 의해 탐방객을 대상으로 해설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신용석, 2016, p.452, 국립공원관리공단, 2005, p.9). 2000년부터는 국립공원 본부 차원에서 자연환경해설 프로그램이 시범운영 되었고(국립공원공단, 2005, p.9), 각 국립공원 사무소 직원들과 간부들을 대상으로 초보적인 행태의 해설에 관한 교육이 처음으로 실시되었다(신용석, 2016, p.452). 당일로 이루어진 이 교육에서는 현장 전문가의 자연해설에 대한 강의와 시연, 당시 각 사무소별로 진행되고 있던 해설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토론, 대학교수들의 외국 국립공원청의 자연해설 업무추진 현황 등에 대한 소개, 그리고 해설업무를 담당할 자원봉사자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등이 이루어졌다(전 국립공원공단 탐방복지처장과의 교신, 2019년 1월 17일). 이렇듯 국립공원공단에 자연환경해설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2001년에는 송형섭・김성일(2001)의 『환경해설의 이론과 실제』, 그리고 한국산림휴양학회(편역) 『숲과 자연환경해설』이 출간되기도 하였다.

2000년대 초반 국립공원공단에 자연환경해설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해설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 것에 비해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전담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청년실업해소 및 환경분야 일자리 창출을 명목으로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에 해설전담 인력의 필요성을 건의(전 국립공원 탐방복지처장과의 교신, 2019년 1월 17일), 3백명의 비정규직 자연환경 안내원을 채용하게 되었다(유학열, 2004). 하지만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자연환경안내원을 채용해 놓고도 처음 2년간 별도의 교육훈련을 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사항이 외부감사에 지적되기도 하였다(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지원처, 200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국립공원공단에서는 2005년 말 자연환경안내원들의 교육 교재로서 『국립공원 자연환경안내서』를 제작했다. 이 교재는 자연해설의 개념과 역사, 목적, 해설의 유형, 해설의 준비와 평가 절차, 해설의 사례 등을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었다.

국립공원공단에서는 2006년에 들어서면서 자연환경안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다(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지원처, 2005). 당시 국립공원공단의 자연환경안내원 교육훈련은 크게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으로 나누어 졌는데, 국립공원공단 본부 차원에서는 자연환경안내원들로 하여금 국립공원공단 인트라넷에 게시된 환경과 관련된 온라인 강좌를 10개 이상 수강하도록 하였다[11]. 개별 사무소에서는 이 온라인 강좌를 바탕으로 사무소별로 활동특성에 따라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다(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지원처, 2005). 하지만 당시 인트라넷에 게시된 온라인 강좌들은 주로 자연환경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고, 환경해설, 프로그램 기획, 국립공원의 역사 등 해설 원리나 기법에 관한 과목은 소수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개별 사무소별로 진행된 자체 교육과 관련하여 공단 본부 차원에서 과목별 강의시간이나 강의목표, 학습 성과 평가 방법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2006년 처음으로 이루어진 국립공원공단 자연환경안내원들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 중 하나는 자연환경안내원들의 전문성 제고 및 정보교류를 위한 워크숍이 개최되었던

11) 이러한 온라인 교육은 2010년까지 꾸준히 진행되었다.

www.kci.go.kr

것이다. 순천대학교 자연환경해설센터와 공동으로 추진된 이 워크숍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자연해설프로그램 운영현황, 해설프로그램 평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해설기법, 버드송(bird song)을 이용한 해설기법, 문화유산 해설, 교보재를 이용한 해설 기법, 자연치유 등 9개 강의가 이루어졌고, 참가자들이 3개조로 나누어 실제 해설을 운영, 평가해 보기도 하였다(국립공원공단 탐방지원처, 2006). 이 워크숍은 우리나라 국립공원공단에서 이루어진 해설사 교육 중 동식물과 지질, 사적 등 해설의 내용이 아닌 해설 원리와 기법을 처음으로 다각적으로 다룬 최초의 워크숍이었다고 할 수 있다[12].

국립공원공단에서는 2007년 들어 공원사무소별로 진행할 수 있는 자연환경안내원 교육훈련의 커리큘럼을 처음으로 제공한다(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 북부사무소, 2007). 이 커리큘럼은 동식물, 지질, 천문, 문화재자연해설개론, 자연놀이 분야에 걸쳐 총 16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16개의 과목 중 절반에 해당하는 여덟 과목이 동식물과 문화재, 숲 등에 관한 것이고, 응급처치 및 구조, 사진촬영, 자연놀이, 현장견학 및 체험, 친절교육 등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7년 공단 본부에서 제시한 자연환경안내원 교육훈련 커리큘럼에서도 국립공원의 관리정책과 환경해설에 관한 과목은 두 과목에 불과했고, 각 과목별 교육목표가 무엇이고 몇 시간 정도 교육해야 하는지, 수강생들의 학습 성과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제공되어 있지 않았다.

2008년에 들어서는 국립공원공단 본부에서 자연환경 안내원 교육과 관련하여 각 과목별 교육시간을(21개 교과목 120시간으로) 구체화 하는 한편 각 공원 사무소에서는 이중 12개 교과목 60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국립공원공단, 2008). 2008년 자연환경안내원 교육과목 및 강의내용은 동식물, 해양, 갯벌, 지질, 문화재 등 자연과학 관련 교과목이 전체 120시간 중 70시간(58.3%)을 차지하고 있었고, 자연해설 관련 과목이 18시간(15%), 숲해설 현장학습 12시간(10%), 안전, 자연놀이 20시간(16.7.%) 등 해설기술 및 해설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과목이 50시간(42.7%) 이었다. 하지만 2008년 국립공원공단 본부에서 각 사무소에 제시한 자연환경안내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에도 2006년, 2007년과 마찬가지로 각 과목별 교육목표나 학습 성과평가 기준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된 자연환경안내원 운영계획에 따르면 공원관리사무소 단위에서 진행된 자연환경안내원 교육훈련의 강사진 구성면에 있어서도 외부강사의 비율이 50%가 넘었다(국립공원공단, 2008). 이는 당시 해설사 교육과정의 근간을 이룬 동식물과 지질, 인문학 등 분야에 강의를 위해서는 박사급 외부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에서는 또한 2008년 한국관광공사 관광교육원과 함께 '생태해설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자연환경안내원 교육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시도는 2009년까지 이어졌다(국립공원공단, 2008; 2009). 2박3일 과정으로 진행된 이 아카데미에서는 고객의 관점에서 관광객을 분석해서 해설을 하는 전략적 접근에 대한 강의와 해설 시나리오작성 현장해설 실습 및 비디오 촬영을 분석하는 강의 그리고 불교미술과 사찰건축에 대한 강의 등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은 국립공원공단 자연환경안내원 교육 중 현장해설 시연을 녹화하여 분석해 보는 것을 처음으로 시도한 강좌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었다. 2009년부터는 국립공원공단에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와 맞물려 국립공원공단에서는 2010년도에 자

12)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이러한 해설사 연례 워크숍을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www.kci.go.kr

연환경안내원들을 대상으로 생태관광아카데미를 권역별로 개최하였다(국립공원관리공단, 2010).

2) 해설사 교육훈련 제도화기(2012-현재)

2008년도 이후 국립공원공단 본부에서 자연환경안내원 교육프로그램 과목과 시간을 마련해 놓고 개별 사무소 차원에서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단 본부 차원에서도 해설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이나 아카데미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안내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이은지, 2012).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에서는 2012년 자연환경안내원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공원공단의 해설사 선발 및 교육훈련제도를 법제화 한다. 환경부에서는 2011년 7월 자연환경보전법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과 유역환경청 등의 자연환경해설사로 채용될 수 있게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였고, 2012년 1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 자연환경해설사 양성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환경부, 2012).

이후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전국 각지의 11개 양성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양성과정은 크게 기본과정과 간이과정 전문과정으로 구성 되어있다. 이 중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의 근간이 되는 기본과정의 경우 해설안내, 자연환경의 이해, 인문사회환경의 이해, 커뮤니케이션 등 4개분야에 걸쳐 총 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지필고사와 해설시연 등 일정한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을 총괄하는 생태관광협회에서는 공통평가단을 구성하여 해설시연에 대한 일정한 심사를 거쳐 자격증을 부여함으로서 해설사들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자연환경해설사로 채용하고 있으며, 기존의 자연환경안내원들 중 2년 이상 근무한 자들에게는 기본과정을 간소화한 35시간의 간이양성 과정을 이수하게 한 이후에 자연환경해설사로 채용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무소 차원에서 공단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해설사(자연환경안내원)들의 교육훈련이 환경부 산하의 외부 기관으로 상당부분 이관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국립공원 해설사 교육훈련의 학습성과 평가가 보다 엄격해진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다.

2012년 제정된 환경부의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과정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연환경의 이해와 인문사회환경의 이해와 관련된 강의시간이 50시간(62.5%)을 차지하고 있었고, 해설기술 및 해설 프로그램운영(해설안내,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강의시간은 30시간으로 전체 교육시간의 37.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공원사무소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자연환경안내원 교육 프로그램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해설의 내용에 관한 교과목의 구성에 있어 다소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2000년대 말 공단 자체적으로 마련되었던 자연환경안내원 교육프로그램에서는 동식물 및 사찰과 문화재에 대한 강의가 70시간으로 전체 교육시간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비해, 2012년 편성된 자연환경해설사의 양성과정에서는 동식물에 대한 강의는 생물자원의 이해라는 과목명으로 21시간으로 줄어들었고, 대신 생태학개론, 자연환경과 인간관계, 자연놀이 실습, 지형 및 지질환경의 이해, 보호지역의 이해, 생태복지의 이해, 생태관광의 이해 등 환경생태학 및 산림휴양 관련 교육내용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하지만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 프로그램에서 해설기술 및 해설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교육시간의 비율은 40% 내외로 2000년대 후반 공단 자체적으로 실시하였던 자연환경안내원 교육 프로그램의 관련 비율과 유사

www.kci.go.kr

했다.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의 강사진 구성에 있어서도 국립공원 공단 소속 해설사들이나 관련 직원들의 참여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에서는 2015년부터 국립공원공단 해설사들 간의 정보교류와 유사기관 해설사례 벤치마킹 등을 목적으로 7개 권역별로 매년 3회의 정기 해설사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는 온라인 평생학습 교육기관인 휴넷과 제휴하여 국립공원 사이버 연수원을 만들고 해설사들로 하여금 스토리텔링, 스피치 기법 등과 관련된 교과목 중 3개 과목 45시간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 2019년에는 국립공원해설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숲치유', '지질', '유아생태', '청소년 생태교육', '해양생태교육' '인문학연계', '실버세대 프로그램' 등 총 6개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자연환경해설사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국립공원공단 탐방해설부 담당자 인터뷰, 2019년 2월 18일). 하지만 이러한 해설사 아카데미나 워크숍의 경우 각 교과목별로 교육목표가 분명하지 않아보이며, 워크숍 후 학습성과 평가기준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국립공원공단에서는 또한 2014년과 2016년 북한산생태탐방연수원에서 자연환경해설가 전문과정을 개설한 바 있는 데, 45명의 자연환경해설사들이 이 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수요부족 등으로 전문과정 자체가 개설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2017년부터는 자연환경해설사의 지속적인 역량강화을 위하여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자연환경보존법이 개정되면서 국립공원공단 해설사들도 이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이 보수교육은 이론과 실기과목을 포함하여 24시간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장 실습의 비율이 다소 높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기본양성교육 내용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없고, 별도의 학습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한국 국립공원공단 해설사 교육훈련 프로그램 변화 요인

한국 국립공원공단의 해설사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그 역사가 채 15년도 되지 않았지만, 해설사 교육훈련이 처음 시작된 2005년에 비하면 몇몇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교육훈련이 시작될 때는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교육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해설사 교육훈련 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는 환경부와 한국 생태관광협회와 주관하는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 한해서 국립공원의 해설사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해설사 교육의 내용과 시간 방법들이 표준화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공단 자체적으로도 소속 해설사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자연환경해설사 아카데미와 워크숍 등을 운영하는 등 해설사들의 교육훈련 체계가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공단의 해설사들의 경우 2003년 처음 고용될 당시부터 비정규직으로 고용됨으로서 공단의 타부서 정규직 직원들과 달리 승진과 임금인상, 교육훈련 등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있어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동안 해설사 자신들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의지 뿐만 아니라 학계와 실무진들 간의 교류, 법제도적 환경의 변화, 공단 관련부서 관리자 및 중간관리자들의 리더십 등으로 인해 해설사 교육프로그램이 변화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고도화를 통해 해설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했던 국립공원공단 탐방해설 업무 담당 관리자들과 직원들이 리더십을 발휘한 것과 국립공원공단 해설사 교육훈련 체계의 수립을 위해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과 국립공원 담당 관리자

www.kci.go.kr

및 직원들이 적극 협력한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의 탐방해설 업무 담당자들은 2000년 국립공원 본부차원에서 자연환경프로그램이 시범 운영되기 시작할 당시 관련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교수들을 초청하여 특강을 실시한 바 있고, 공단에 자연환경해설사들이 채용된 이듬해인 2005년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설업무 담당자 주도로 공단 최초의 해설사 교육교재인 '국립공원 자연환경안내서'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2005년 이후로도 국립공원공단 해설업무 관리자와 담당자들은 사무소 차원에서 진행되는 자연환경해설 교육프로그램에 외부 전문가의 비율을 50%이상 하도록 하는 등 자연환경해설사 교육훈련을 위해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해설사 워크숍, 생태해설 아카데미, 자연환경해설사 아카데미 등 공단 본부 차원의 해설사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도 외부 전문가들의 특강을 적극 실시하였다. 환경부 주관으로 자연환경해설사 자격제도를 만드는 과정 역시 외부전문가 학술용역을 발주하여 그 결과를 기반으로 현재까지 국립공원 자연환경 해설사 기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제도적 정책적 환경의 변화 역시 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교훈훈련 프로그램의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따지고 보면 국립공원에 자연환경해설사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김대중 정부 초기인 1998년 국립공원공단이 내무부 소속에서 환경부 소속으로 바뀌면서이고, 생태관광, 생태나누리 등 국립공원공단에서 자연환경해설 업무가 확대되고 자연환경해설사의 위상이 높아진 것도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 중의 하나인 녹색성장의 영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자연환경해설사 자격제도를 만들어 자연환경해설사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통과한 자에 한하여 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것 역시 환경부가 자연환경보존법을 개정하면서 부터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역시 우리나라 국립공원공단의 자연환경해설사 교육훈련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공단에서는 2005년 자연환경해설사 교육훈련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공단 내 인트라넷 시스템에 동영상 등 온라인 교육교재를 올려놓고 이를 일정한 시간 이수하도록 한 바 있으며, 2015년부터는 공단 해설사들로 하여금 온라인 전문교육기관인 휴넷의 관련 교육콘텐츠를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Ⅴ. 결론: 비교분석 및 혁신방안의 모색

이 연구의 결과는 미국 국립공원청과 한국 국립공원공단 해설사 교육훈련 체계의 변화와 발전에 법 제도적, 정책의 변화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해설업무 관리자, 현장 해설사, 외부전문가 등 해설사 교육훈련과 관련된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방정부 기관인 미국 국립공원청의 해설사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었던 데에는 법적 제도적 요인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가령 1958년 미국 의회에서 연방정부 교육훈련법이 통과된 것은 해설사 교육훈련을 포함해 미국 국립공원청 소속 직원의 직무연수 시설과 프로그램을 도입한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990년대 말부터 도입된 인터넷, 원격강의, 이러닝(e-learning) 등은 미국 국립공원청의 해설사 교육훈련 공간을 온라인으로 확장시키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국립공원청의 해설사 교육훈련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결정적인 요인은 조직 내부

www.kci.go.kr

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해설과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미국 국립공원청 청장들의 역할은 미국 국립공원청에서 해설사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해설사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미국 국립공원청의 경우 창립 초기부터 청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공원관리수단으로서 해설업무의 중요성과 해설사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인지되어 있었고, 이는 이후 국립공원청 해설사들의 상당수가 연방정부 공무원으로 선발되고, 해설사들의 교육훈련이 지속적으로 발전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해설과 해설사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여러 청장들의 역할 못지않게 중요했던 것은 해설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현장 해설사들과 현장에서 해설사들을 진두지휘하고 관리했던 관리자급 해설사들의 역할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해설이론을 발전시키고 관련 전문서적을 출간해온 학계 전문가들과 이들이 발전시킨 개념과 이론을 해설현장에 적용해 보고자 했던 실무자들 간의 교류 역시 미국 국립공원청의 해설사 교육훈련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해설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미국 국립공원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설인재개발 프로그램의 가장 기초과목인 해설의 기초(foundation of interpretation)는 이러한 학계에서 발전된 개념과 원리에 철저하게 뿌리박고 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공단의 경우 자연환경해설사가 처음으로 고용될 무렵 공단의 주요 의사결정자들이나 환경부, 재경부 및 의회 등 공공기관 인력배정과 관련된 기관의 관계자들에게 해설업무의 중요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인지되지 못한 채, 청년실업해소 차원으로 접근되어 해설사가 비정규직으로 대규모 채용되었고, 이는 태생적으로 자연환경해설사 교육훈련의 내생적 동력이 미국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한국 국립공원공단 해설업무 관리자 및 실무자들, 그리고 현장 해설사들은 자체적인 노력과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들과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 해설사 교육훈련 교육체계를 변화발전 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공단 자연해설사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가장 큰 변화는 자연환경해설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존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국립공원공단 해설업무 관리자 및 담당자와 외부 전문가, 현장 해설사, 그리고 환경부 관계자들이 해설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 국립공원공단의 경우 자연환경해설사 교육을 시작할 당시 공단 내에 오랜 해설경험이 있고 해설 원리와 기법에 정통한 내부 전문가가 부족했던 관계로 미국 국립공원청에 비해 외부 전문가나 외부 전문기관이 교육훈련 체계의 수립과 교육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발달된 IT기술 역시 자연환경해설사들의 온라인 교육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립공원공단의 현행 자연환경해설사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미국 국립공원청의 해설사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비교해 보았을 때 몇몇 면에서 혁신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내용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 국립공원공단의 현행 자연해설사 교육훈련 프로그램(자연환경해설사 기본과정/전문과정과 공단 자체교육)은 미국의 현행 해설사 교육훈련 프로그램인 '해설인재개발프로그램(Interpretive Development Program)'에 비해 자연환경이나 생태(가령 동식물, 지질, 해양

www.kci.go.kr

생태) 등 해설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많은 반면 해설 원리와 다양한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유형 해설 상황별 해설기법, 해설원고작성 등에 대한 교육내용이 부족하고 체계적이지도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립공원공단 자체교육과정에 해설기법에 관한 교육 내용을 보다 세분화 하고 선후관계를 정하여, 이를 모듈화 등급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령 국립공원공단 자체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을 중급해설과정과 고급해설과정으로 나누어, 중급해설과정에서는 해설의 역사와 철학, 성공적인 해설의 원리, 의미 있는 해설, 탐방객 만족의 개념과 원리 등에 관해 20시간 정도의 해설 원리에 관한 내용을 추가시키고, 고급해설과정에서 탐방안내소 해설, 거점해설, 이동식 해설, 역사문화해설, 기후변화해설, 숲치유, 숲학교,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해설, 국립공원진로체험과 주니어 레인저 해설 등 40시간 정도의 다양한 유형의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해설기법에 관한 내용을 모듈화 하여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환경해설사들의 교육훈련에 관한 현행 국립공원공단 교육규칙의 개정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해설사 교육훈련의 교육성과를 평가하는 방식도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립공원공단의 자체 해설사 교육훈련과정은 강의와 실습은 있지만 수강생들의 교육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이 없다. 이에 비해 미국 국립공원청의 해설인재 개발프로그램에서는 역량기반 학습(Competence Based Learning)에 기반하여 각 교과목별로 분명한 교육성과를 기술하여 놓고, 해설사들로 하여금 해설 영상이나 원고, 기획서 등 해당과목의 지식과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성과물을 교육수료 이후 자유롭게 제출하게 한 후, 이 성과물들을 복수의 전문가가 인증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공단에서도 교육훈련을 해설사들의 역량강화로 직결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성과 평가과정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각 교과목별 교육목표나 교육성과의 평가기준이 무엇인지를 수강생들이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강의안이나 교재 등에 이를 분명히 기술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단 워크숍 등을 통해 교육성과물을 일관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립공원공단 교육훈련 강사진의 구성에 있어서도 변화를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 국립공원청의 해설인재개발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해설인재개발팀에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목표, 전반적인 내용, 교육성과 평가기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내부의 관리자급 해설사들로 강사진을 구성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외부 전문가들을 개별적으로 초청하여 해설사 교육훈련을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립공원공단의 경우도 해설사 중 일부를 경력과 역량평가, 고급해설기법 수료 여부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강사진으로 선발한 후 교수학습법 등에 대한 워크숍 등을 통해 강사진으로 기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외부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단에서 제시한 해당 교과목의 교육목표와 교육성과 평가 기준을 숙지하고 강의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해설사 교육교재의 개발과 온라인 교육활성 역시 우리나라 국립공원공단이 추후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미국 국립공원청의 경우 이미 1950년대 초부터 해설기법과 관련된 교육교재들을 해설유형별로 개발해 오고 있고, 2000년대 초반부터는 해설인재개발프로그램에 대한 별도의 홈페이지를 제작해 각 과목별 교육목표와 학습 성과평가 지침, 각 과목별 우수성과물 사례, 각종 교육자료 등을 올려놓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 국립공원공단의 경우 2005년 제작

www.kci.go.kr

한 기초적인 교육교재 이외에 아직까지 별도의 교육 교재가 없는 형편이고, 공단 자해설사 교육훈련과 관련된 인트라넷이나 홈페이지도 별도로 없는 상황이다. 공단 해설사 교육훈련 교재의 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미국 국립공원청에서 제작한 교육훈련 교재와 샘 햄(Sam Ham)의 『탐방객 경험의 차이를 만드는 해설』(Interpretation: Making a Difference on Purpose) 등 최근 미국에서 출간된 해설 원리에 관한 교과서의 번역작업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단 소속 해설사들이 언제 어디서나 특정 교과목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높일 수 있도록 공단 인트라넷에 해설사 교육훈련과 관련된 방을 별도로 만들어 온라인 콘텐츠를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한국 국립공원공단의 자연환경 해설사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해설사들의 신분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왜냐하면 자연환경해설사들에게 있어 승진과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이 뒤따르지 않는 교육훈련의 의미와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자연환경해설사들의 지위가 단기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의 바뀌면서 지위가 보다 안정되었지만, 아직까지 자연환경해설사들 사이에 경력과 해설 성과, 교육훈련 참여여부에 따라 직위와 급여의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설사들에게 교육훈련에 대한 외적 동기부여가 약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훈련이 부담으로서만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일정한 경력과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자를 수석해설사 등으로 승진시킬 수 있는 제도와 해설사 직군 내에서의 경력과 성과에 따라 의미있는 급여의 차등을 두는 제도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미국의 국립공원청처럼 우리나라 국립공원공단에서도 각 공원 사무소별로 해설과 교육을 전담하는 정규직 레인저의 수를 2명 정도까지 늘리는 방안과 기존의 해설사들 중 일부를 일정한 채용절차를 거쳐 중간관리자급 해설사로 기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립공원공단의 주요의사결정 뿐만 아니라 환경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 관련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국립공원 해설사의 정규직화 필요성을 공감하는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정계가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국립공원 해설사 교육훈련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그 요인을 들여다보기 위하여 광범위한 자료 등을 검토해 보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심층면접도 실시하였다. 하지만 연구를 위한 시간과 비용 등의 한계로 이와 관련된 일부 자료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미국 국립공원청의 경우 1957년부터 1962년까지 신입 레인저 교육이 진행된 요세미티 서비스학교의 자료와 각 지역사무소 및 국립공원 차원에서 진행된 해설사 교육훈련 자료에는 접근하지 못했고, 우리나라 국립공원공단의 경우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각 지역사무소에서 진행된 해설사 교육의 전부를 소상히 들여다보지는 못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본부 차원에서 진행된 교육과 각 개별 공원단위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었던 해설사 교육에 일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연구의 내용을 상호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국립공원의 관계자들도 그 내용을 검토해 주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양적 연구에서처럼 그것을 수치로 표시할 수 없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www.kci.go.kr

참고문헌

김경동・이온죽(1993).『社會調査硏究方法』. 서울: 박영사.

국립공원관리공단(2005).『국립공원자연환경안내서』. 서울.

_____(2008).『탐방프로그램 전문화를 위한 2008 자연환경안내원 운영계획』. 서울.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지원처(2005).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국립공원 탐방프로그램 다양화 특성화를 위한 2006년 자연환경안내원 운영계획』. 서울.

_____(2006).『자연환경해설사 워크숍 결과보고』. 서울.

_____(2009).『2009년 자연환경안내원 운영계획』. 서울.

_____(2010).『탐방서비스 전문화를 위한 2010년 자연환경안내원 운영계획』. 서울.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북부사무소(2007).『탐방프로그램 다양화 및 특성화를 위한 2007년 자연환경안내원 운영계획』. 서울.

송형섭・김성일(2001).『환경해설의 이론과 실무』. 대전: 충남대학교 출판부.

신용석(2016).『국립공원의 관리와 이해: 보호지역과 자연공원관리 입문서』. 서울: 자연과 생태사.

오민재(2013). 생태 해설을 통한 NEP 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관광학연구』, 37(1), 167-190.

유학열(2004.07.19.). 자연환경안내원 3백명 채용.『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201&aid=204071800076

이은지(2012.04.18.). 환경부 전문성 갖춘 자연해설사 양성키로.『뉴스 1』. http://news1.kr/articles/637670.

이진형(2012). 생태관광 자원해설의 효과: 자연해설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국립공원 방문객의 인지, 태도, 행동의 변화.『관광학연구』, 36(5), 177-197.

이진형・여영숙(2010). 탐조관광 자원해설에 대한 평가: IPA의 적용.『관광학연구』, 34(5), 131-153.

한국산림휴양학회(편)(2001).『숲과 자연환경해설』. 서울: 수문출판사.

환경부(2012.04.19.).『정책 브리핑』. 서울.

Beck, L., & Cable, T. (2002). *Interpretation for 21st Century: Fifteen Guiding Principles for Interpreting Nature and Culture* (2nd Ed.). Champaign, IL: Sagamore Publishing.

Bryant, H. (1925). A school for nature guide. *Yosemite Nature Note, 4*(2), 9-10.

_____ (1940). The Yosemite School of field natural history. *Park Service Bulletin, 10*(2), 33-39.

_____ (1960). The beginning of Yosemite Educational Program. *Yosemite Nature Note, 39*(7), 161-165.

Barrie, E., Coble, T., Ammerman, T., & Bliss, K. (2015). Competency-based training: A case study of the United States national park service's interpretive development. *Journal of Geoheritage, 3*(1), 17-30.

Brockman, C. F. (1978). Park naturalists and the evolution of national park service interpretation through World War II. *Journal of Forest History, 22*(1), 24-43.

Ditmanson, D., Backlund, C., Dahlen, D., & Watson, M. (1988). National Interpreters Workshop Proceedings, 63-68.

Everhart, W. (1973). *A report on national park service interpretation.* Harpers Ferry, WV: Stephen Marther Training Center.

Ham, S. (1992). *Environmental interpretation. A practical guide for people with big ideas and small budgets.* Golden, CO: North American Press.

Hanna, J(Ed.). (1972). *Interpretive skills for environmental communicators.* Department of Recreation & Park, Texas A&M University, College Station, TX.

www.kci.go.kr

Harwell, C. A. (1931). The school of the outdoors in Yosemite. *Yosemite Nature Note*, *10*(5), 42.

_____ (1933). Field nature school plans told. *Yosemite Nature Note*, *12*(3), 20-21.

_____ (1934). School of field nature history 1934 session announced. *Yosemite Nature Note*, *13*(3), 20-21.

Lytle, P. (1950). The 1950 field school. *Yosemite Nature Note*, *20*(9), 9-10.

Lewis, W. (2011). *Interpreting for Park Visitors (11th printing).* Eastern National.

Mahaffey, B. (1973). Curricular guidelines for environmental interpreter training programs. *The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5*(1), 23-30.

Mackintosh, B. (1986). *Interpretation in the National Park Service: A historical perspective.* National Park Service (https://www.nps.gov/parkhistory/online_books/mackintosh2/interp_interp.htm).

Mayo, C., Larsen, D., Barrie, B., Wolter, S., & Bliss, K. (2009). *Foundations of interpretation competency narrative.* Eppley Institute for Parks & Public Lands, Indiana University.

National Park Service. (1953). *Talks(In service training)*. Washington, DC.

_____ (1954). *Conducted Trips (In service training)*. Washington, DC.

_____ (1955a). *Campfire Program (In service training).* Washington, DC.

_____ (1995b). *Informational Please(In service training)*. Washington, DC.

_____ (1975). *A Personal Training Program for Interpreters.* Washington, DC.

_____ (2014). *Vision paper: 21st Century national park service interpretive skills. Washington*, DC.

National Park Service Division of Training. (1986). *Courier(fall special issue),* 1-33.

National Park Service Division of Employee Development Division. (1991). 75 years of employee development in the National Park Service. *Courier(special issue)*, 28-31.

National Park Service Department of Interpretation, Education, and Volunteers. (2014). Achieving relevance in our second century: A five year interdisciplinary for interpretation. *Education, and Volunteers as We Enter the Second Century of the National Park Service*, Washington, DC.

Risk, P. (1986). The incompetent interpreter: A new university product. *Journal of Interpretation*, *2*(1), 27-32.

Sharpe, G. (1982). *Interpreting the Environment (*2nd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Stephen Marther Training Center (1963). *Courses and Conferences.*

_____ (1964). *Courses and Conferences.*

_____ (1965). *Courses and Conferences.*

_____ (1966). *Courses and Conferences.*

_____ (1969). *Courses and Conferences.*

_____ (1973). *Courses and Conferences.*

_____ (1981). *Courses and Conferences.*

Tilden, F. (1977). *Interpreting Our Heritage (3rd Ed)*.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Chapel Hill.

Torraco, R. (2016). Early history of the fields

www.kci.go.kr

of practice of training and development and organization development. *Advances in Developing Human Resources*, *18*(4), 439-453.

Watson, M. (1986). NPS interpretive skill programs. *Trends*, *23*(2), 4-8.

_____ (2005). Competency-based training and development: The origin of the IDP. *Ranger, 21*(2), 7-8.

Wright, B. A., & Makay, A. (1995). *Interpretation training needs assesment for Stephen Marther Training Center*. Harpers Ferry, WV: Stephen Marther Training Center.

2019년 3월 18일 최초투고논문 접수
2019년 6월 10일 최종심사완료 및 게재확정 통보
2019년 6월 12일 최종논문 도착
3인 익명심사 畢

www.kci.go.kr